



##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7월4일, 타스통신

### 연해주, 동방경제포럼을 통한 투자계약총액 최소 1000억 루블 기대

타스통신과 인민일보가 조직한 러중 미디어투어에서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제 2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되는 투자계약들의 총액은 작년도 대비 동등 또는 높을것으로 보인다. <http://tass.ru/ekonomika/3427275>

2016년 7월4일, 페트로파블롭스크 석간

### 캄차카에서 동방경제포럼에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할 사업가 선별 개시

«심사단계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방경제포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자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표를 원하는 경우 서류를 영어로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캄차카지방 투자 및 사업청에서 밝혔다. <http://www.vestipk.ru/?id=33568>

2016년 6월 30일, [www.primgazeta.ru](http://www.primgazeta.ru)

### 동방경제포럼 투자프로젝트 접수 기한 7월 10일로 연장

극동개발부에 의하면 현재 46개의 투자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이미 구현단계에 있다. 대부분 어업, 물류, 농업, 비철금속, 관광업과 관련되어 있다. 프로젝트 투자 총액은 1조 1000억 루블이며 투자가 필요한 금액은 3760억 루블이다. 가장 많은 수의 프로젝트가 집중된 지역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이다. <http://primgazeta.ru/news/accepting-applications-investment-east-economic-forum-have-extended>

2016년 6월 30일, [www.forumvostok.ru](http://www.forumvostok.ru)

### 동방경제포럼서 인적자원개발 논의

동방경제포럼 논의 주제 중 인적자원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포럼 행사로 «투자자를 위한 인적자원 공급: 툰키 솔루션» 패널 세션이 계획되어 있다.

극동은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극동 인적자원개발기관장 발렌틴 티마코프에 의하면 지역 경제발전으로 여러 경제분야의 고용율이 대폭 상승할것이다. 2021년까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신규 기업들은 4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에게 전문인력을 공급하는것은 극동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http://bit.ly/29b2l67>

2016년 6월28일, Sina Finance

###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동방경제포럼서 러중 2건 계약 예상됨으로 밝혀

중국 시나통신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러시아 극동 2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예정을 공고하였다. 계약체결은 제 2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있을 예정이다.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6-28/doc-iftmses1339530.shtml>

2016년 6월 28일, [www.forumvostok.ru](http://www.forumvostok.ru)

### 동방경제포럼서 극동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공개

러연방 천연자원부 세르게이 돈스코이 장관은: « 천연자원채굴 관련 주요 현존 및 향후 프로젝트들이 전시됩니다. 또한 극동에 위치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들도 전시됩니다. 최대한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보호구역들에 대해 접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러연방 천연자원환경부는 포럼에서 자연관광 프로젝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극동 경제와 투자 잠재력은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환경 목적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돈스코이 장관이 밝혔다.

<http://bit.ly/29y2Tm1>

2016년 6월 28일, [www.forumvostok.ru](http://www.forumvostok.ru)

### 동방경제포럼 극동 관광발전에 기여

«극동에게 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에 포함되며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발전시킵니다. 관광산업에게 극동은 자원이며 극동에 투자금이 유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될것입니다.»라고 러연방관광청 세르게이 코르네예프 부청장이 밝혔다.

부청장에 의하면 포럼이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새 사업관계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은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주제에 포함되어있다. <http://bit.ly/297W0ql>

## 극동 국가정책

2016년 7월 1일, 인터팍스

### 일본, 중국 사업계 러시아 사업에 관심 증가

일본과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결정권자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밝혔다.

«러일관계 동향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에 대한] 일본측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총리는 밝혔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0633&sec=1671>

2016년 6월 30일, [www.minvostokrazvitia.ru](http://www.minvostokrazvitia.ru)

###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주지사들이 자유항 발전의 핵심역할을 맡아야

극동 및 바이칼지역 투자프로젝트 추진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참석한 극동지역 주지사들에게 자유항 운영 업무 조직을 지시하였다.

«극동개발부와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빨리 상세한 각 구역별 운영시스템 조직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라고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말했다. 전권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자유항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은 주지사들의 몫이다. «해당 책임을 담당할 준비를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방문을 통해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구도로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매일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의 의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동향을 주의깊게 살필 생각입니다.»라고 부총리가 강조했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09](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09)

2016년 6월 30일, [www.minvostokrazvitia.ru](http://www.minvostokrazvitia.ru)

### 어업분야 발전을 위한 투자쿠퍼터 관련 상원 표결

러연방 상원은 어업 및 수중생물자원 보호법 개정안과 수산물 쿠퍼터 분배 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을 지지하였다. 표결결과 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어업분야 발전의 새로운 정책으로 투자목적을 위한 수산물 쿠퍼터 제공이 가능해진다. 투자자는 수산물쿠퍼터를 배정받을때 러시아 선박 매입 또는 어류가공공장 설립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런 형태의 쿠퍼터제 도입은 선박 교체와 해안 인프라 근대화에 기여할것이다.

또한 법안에 따라 사용자당 쿠퍼터 배당비율 고정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08](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08)

2016년6월 29일, 극동캐피탈

### 7월 1일부터 극동 투자자들에게 천연자원채굴세 혜택 제공

극동연방관구 산업에 5000만 루블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해당일로부터 천연자원채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dvkapital.ru/regionnow/dfo\\_29.06.2016\\_8435\\_lgoty-po-ndpi-dlja-investorov-na-dalnem-vostoke-nachnut-primenjat-s-1-ijulja.html](http://dvkapital.ru/regionnow/dfo_29.06.2016_8435_lgoty-po-ndpi-dlja-investorov-na-dalnem-vostoke-nachnut-primenjat-s-1-ijulja.html)

2016년 6월 27일, 타스통신

###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극동을 떠날 필요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인터뷰: 일본, 중국 동방경제포럼 참가 전망, 러중 비즈니스 협력과 극동의 개발

«현재 국가지원을 받아 200개 이상 신규 산업체들이 극동에 건설되고 있으며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주민들은 극동을 떠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올해 이미 상황이 반전되어 극동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수십배 감소하였습니다.»라고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밝혔다. <http://tass.ru/opinions/interviews/3403266>

## 극동경제

2016년 7월 4일, RIA News

### 푸틴 대통령, RusVietPetro 협약을 비준하는 법안 서명

러연방 푸틴 대통령은 RusVietPetro 합자법인을 통한 베트남과의 러시아 내 지질탐사, 석유 및 가스 채굴 관련 향후 협력과 관련된 러-베트남 내각 간 협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을 서명하였다. <http://ria.ru/economy/20160703/1457370893.html#ixzz4DQYI8bMM>

2016년 7월 1일, RIA News

### 극동개발기금, 3개 신규 프로젝트에 46억 루블 책정

러연방 정부 극동 투자프로젝트 추진 분과위원회가 극동 및 바이칼지역 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3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별하였다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밝혔다.

극동개발기금의 우선적 지원을 받을 프로젝트들은 러시아우체국 물류허브 57억 루블 (기금 투자 18억,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 콩 가공공장 2차, 3차 건설 58억 루블 (기금 투자 21억 4000만), 오제르니 광업공단 교통 인프라 조성 729억 루블 (기금 투자 6억 3000만)이다. 하지만 오제르니 광업공단에 대한 결정은 보류된 상태이다. «프로젝트 추진시 바이칼 인근지역에서 납, 아연 원석을 가공하게 됩니다. 바이칼 호수 자연보호구역에 산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밝혔다. 위험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오제르니 광업공단 프로젝트는 기금의 지원을 받게되지만 위험요소가 존재함으로 확인되면 받을수 없다. <http://ria.ru/economy/20160630/1455099205.html#ixzz4D94kfglq>

2016년 6월30일, www.interfax-russia.ru

### 극동개발부, 자유항 체제 발전에 따라 극동 항구들에 외국자본 유입 기대

러연방 상원은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 연방법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연방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개정안을 따르면 자유항 체제가 하바롭스크 주 (바닌스키 군), 사할린 주 (코르사콥스키 시구), 캄차카 지방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축치 자치구 (페벡), 연해주 (라좁스키 군)에도 도입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0302&sec=1679>

2016년 6월 30일, [www.interfax-russia.ru](http://www.interfax-russia.ru)

### 자유항 체제로 하바롭스크 주에 추가 투자 유치

«하바롭스크 주 바닌스키 군으로 확장되는 자유항 체제는 추가로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억 이상의 투자금이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바롭스크 주정부 보도국이 밝혔다. 현재 사하트란스 사 터미널을 포함한 여러개의 투자프로젝트가 이미 바닌스키 군에서 구현되고 있는 중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38998&sec=1671>

##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6년 7월 1일, [www.interfax-russia.ru](http://www.interfax-russia.ru)

### 야쿠티아, 동방경제포럼서 요양, 휴양 단지 조성 프로젝트 공개

야쿠티아 정부는 메기노칸갈라스키 군에 들어설 «아바라흐» 공화국 요양, 휴양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 발굴을 희망한다. 아바라흐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소스노프카» 재활 및 치료 요양센터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요양, 휴양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환자 120명을 수용할수 있는 치료재활센터, 60명 규모의 요양, 휴양 단지, 식당을 포함한 인프라 시설 건설을 포함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0642&sec=1671>

2016년 6월29일, RIA News

### 인도 투자자들,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에 관심

«러시아의 법령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우선적인 협력방향으로 농업 중심인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투자자들은 해당 선도개발구역의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인도대사 판캇지 사란이 밝혔다. <http://ria.ru/economy/20160629/1454006798.html#ixzz4D8oa5fcu>

2016년 6월29일, [www.interfax-russia.ru](http://www.interfax-russia.ru)

### 베링굽스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축치 자치구에 처리량 연 35000입방미터의 신규 고품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 계획

아나디르 운송사가 ООО 축치 자치구에 처리량 연 35000입방미터의 신규 고품생활폐기물 매립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 총액은 2400만 루블 이상이다. 연관 계약이 (주)극동개발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및 극동 선도개발구역 운영사), 아나디르 운송사 간 체결되었다.

또한 극동개발사는 AKSU사와 아나디르 도시구 수처리장 근대화 계약을 체결해 프로젝트에 2700만 루블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근대화가 완료되면 식수 정화 프로세스가 자동화된다.

상기 프로젝트들은 베링굽스키 선도개발구역에서 진행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39774&sec=1671>

2016년 6월 28일, [www.ysia.ru](http://www.ysia.ru)

### 레나 강 횡단 다리 6년안에 건설

러중 정부간 위원회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레나 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6년안에 또는 더 일찍 완공될 예정이다.

«2014년도에도 중국 기업체들과 협상을 추진했었습니다. 야쿠티아 정부는 관련 서류 준비 및 조율과 관련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야쿠티아 투자개발청 사장 알렉세이 자고르첸코가 밝혔다.

야쿠티아 예고리 보리소프 대통령은 북경에서 있었던 제 3회 러중 정부간 투자협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러시아 이고르 슈발로프 수석 부총리와 중국 국무원 장가오리 부총리가 의장을 맡은 회의에서 총 900억 달러 규모의 66개 공동투자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최종 보고에 기록하였다. 이 중 야쿠티아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3개이다 .

<http://ysia.ru/glavnoe/most-chez-lenu-planiruyut-postroit-v-techenie-shesti-let/>